

이슈

2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2826호

내가 왜 떴게?

내 맘은 해시태그 속에 “임금님 귀는 …”

●김단빈 심경고백 : MBC 예능프로그램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의 후폭풍이 이상할 정도로 거세다. 개그맨 김재욱은 아내 박세미와 함께 출연했다가 시청자들로부터 비난의 맛글을 트럭 열대본 정도 들어야 했다. 현재 김재욱의 SNS는 모두 닫혀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출연자 김단빈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드러냈다. “당신은 관찰자? 나는 마음이 복잡해서 한숨도 못 잤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아. 숨어있지 않으려구”라는 내용의 글이다.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태그에 붙어있는 것 같다. #뭔가찝찝한데 #나도할말있다 #마음을 이야기해야겠어 #임금님귀는당나귀귀

한달에 5000만원? “나가는 돈도 많아”

●이사배 월수익 : 스타 유튜브크리에이터 이사배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 팬들이 궁금해 하던 자신의 수익에 대해 언급했다. 이사배는 DJ 지석진이 “월 5000만원 정도 번다는데 진짜냐”라고 묻자 “진짜다”라고 답했다. 다만 “순익은 아니고 나가는 돈도 많다”고 덧붙혔다. 예를 들어 직원 임금도 있다. 현재 직원이 2명인데 앞으로 2명 더 채용할 예정이라고. 이사배는 개인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구독자 수만 150만명이 넘는다. 뭐니 뭐니 해도 화장품 값이 제일 많이 나가지 않을까?

‘각’ 선미냐, 사랑 진이나

●선미·김사랑 화보패션 : 선미와 김사랑의 화보패션이 동시에 포털 검색에 인기순위에 올랐다. 선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포츠 브랜드와 촬영한 화보사진을 올렸다. 시원한 수영복 패션이다. 늘씬한 다리, 가녀린 허리가 눈길을 고정시킨다. ‘선미는 각설탕’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김사랑 역시 인스타그램에 청바지를 입고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김사랑 정도는 때아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가 될 수 있는 걸까. 청바지를 샀다. 가장 줄이러 가야겠다.

“성폭행 김성룡 제명”

프로기사 대의원회의 만장일치 의결

24일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들이 대의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성룡 9단(42)의 제명을 의결했다. 김성룡은 외국인 여자 프로기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프로기사들이 동료 기사를 제명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제명이 실효한 것은 아니다. 기사총회(프로기사 회장 손근기)에서 김성룡의 기사회 회원자격 박탈을 결의하면 이후 한국기원 이사회(의장 홍서현 총재)의 의결단계를 거쳐야 한다.

바둑계의 ‘김성룡 지우기’도 빨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기원은 23일 “김성룡 9단의 홍보이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원이 운영하는 바둑TV도 해설자를 교체하는 등 김성룡을 편성에서 배제했다. 지난 21일에는 여자 프로기사 50여 명이 바둑계 미투에 대한 피해자 지지와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양형모 기자 rani@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타고투저 시대의 그림자 |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어난 불론세이브…왜?



10구단 체제가 된 이후 KBO리그는 불론세이브가 증가하고 있다. 롯데 박진형(왼쪽부터), KIA 김세현, 삼성 심정민, LG 정찬현은 시즌 초반부터 불안함을 노출할 때가 있다.

스포츠동아DB

KBO 사상 첫 ‘200개 불론세이브’ 시즌 오나

136개→158개→174개 매년 증가
마무리·중간계투 불론 합산한 기록
올해 벌써 36개…200개 넘을수도
오승환 97% 이후 ‘세이브 성공률’ ↓

KBO리그는 수년 전부터 ‘타고투저’의 바람을 타고 있다. 투수들의 ‘수성’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과제로 변모하는 모습이다. 이 중에서도 불명예 기록 중 하나인 ‘불론세이브(이하 BS)’가 해가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중이다.

●불론세이브(BS), 2018시즌에는 200개?

KBO리그에 기록되는 BS는 마무리투수들에게만 국한된 기록이 아니다. 세이브 상황을 지키지 못한 모든 중간계투들의 지표가 합산된 기록이다.

10구단 체제가 확립된 2015시즌 이후 BS 수치는 매해 늘어났다. 구단 수 증가로 당연한 듯 보였지만, 최근 3년간의 BS 수치 증가는 분명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2015시즌에 10개 팀이 기록한 BS는 총 136개였다. 이후 2016년에는 158개, 2017년에는 무려 174개까지 증가했다. 2018시즌은 전체 일정의 약 1/6정도가 진행된 가운데, BS 수치가 23일 기준으로 36개에 이르렀다. 이대로 가다가는 KBO리그 역사상 최초로 200개가 넘는 BS가 기록될 수도 있다.

●마무리투수의 세이브성공률 90%, 이제는 마의 벽인가

강한 마무리투수는 팀의 선발투수만큼이나 고평가 받는 자원이다. 안정적으로 뒀음을 지킬 수 있는 선수의 존재는 해당 팀에게는 안정감을, 상대에게는 공포감을 준다.

과거 삼성 왕조 건립에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오승환(36·현 토론토)은 ‘끝판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로 경기 후반 큰 안정감을 뽐냈다. 세이브왕이라는 타이틀에 가장 어울리는 기록을 남긴 투수다.

그러나 최근 KBO리그에는 오승환 같은 압도적인 마무리투수가 사라졌다.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세이브성공률 90% 이상을 기록한 세이브왕이 사라진 지 오래다. 2011년부터 매 시즌 세이브성공률 1위 투수의 기록을 살펴보자. 당시 오승환은 97.9%[1(불론세이브)/48(세이브 상황)]를 기록했다. 2012년에도 오승환이 97.4%(1/38)를 보였다. 손승락(롯데)은 2013년 90.2%(5/51), 2014년 84.2%(6/38)였다. 2016년에는 김세현이 81.8%(8/44), 2017년에는 다시 손승락이 88.1%(5/42)로 세이브성공률 1위에 올랐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드라마는 현실을 넘을 수 없다...

한예슬 의료사고·의료진 사과가 던진 ‘3가지 화두’

- 1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청원
- 2 환자 불평등, 사실이었나
- 3 VIP 신드롬에 대한 환기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고가 다양한 화두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예슬이 SNS를 통해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힌 후, 해당 병원 측이 즉각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자 파장이 다각도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한예슬은 4월2일 왼쪽 겨드랑이 아래 지방종 제거술을 받다가 의료진의 실수로 수술 부위 근처에 화상을 입었다. 인두에 테 피부조직이 떨어

져나갔고 이를 접합했으나 잘 붙지 않아 한예슬은 20일 SNS에 관련 사진과 함께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한예슬을 수술했던 서울 강남차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측이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자 이틀날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료사고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계 혁신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4일 현재 한예슬 의료사고로 인해 제기된 청원은 모두 10건. 이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는 청원은 사흘 만에 약 2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제기한 이들은 모두 한예슬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이번 강남차병원 측의 과실 인정과 공개사과는, 의료법 개정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중대한 ‘계기’로 생각하게 만들어 준 것이다.

나이가 한예슬이 병원 측의 즉각적인 사과를 받은 것은 그가 유명인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이어지면서 ‘환자 불평등’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 피해자가 한예슬과 같이 유명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었어도 강남차병원이 과연 똑같은 조치를 했겠느냐는 회의적 의심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이 즉각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하는 일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기에, 이번 강남차병원의 조치를 두고 ‘환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아울러 한예슬의 의료사고로 인해 ‘VIP신드

안경 낀 스튜어디스 보셨나요?

“참으며 하는 서비스보다 즐겁게”
제주항공, 안경·네일 아트 허용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은 최근 객실승무원(cabin attendant)의 서비스 규정을 일부 변경, 안경 착용과 네일 아트를 허용했다.

그동안 객실승무원의 안경착용을 금지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으나 관행적으로 안경 대신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손톱 역시 단색 매니큐어만 가능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안경착용 허용하고, 파손에 대비해 여분의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를 소지토록 했다. 손톱 역시 승객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스쳤을 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과한 큐빅이나 스톤 아트를 제외한 모든 색의 네일 아트를 허용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아간비행이나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억지로 콘택트렌즈를 끼고 비행에 나서는 객실승무원이 의외로 많다”며 “참으며 하는 서비스 보다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서 하는 객실서비스가 승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4월1일 만우절에도 하루 동안 국내선과 국제선의 객실승무원들에게 원하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귀걸이, 모자, 안경, 컬러렌즈 등을 자유롭게 착용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롬’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다. ‘VIP 신드롬’은 너무 잘해주려다 오히려 화를 입은 경우를 설명하는 단어다. 37대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노환규 하트웰의원 원장은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한예슬씨 의료사고와 VIP 신드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여성이자 유명 배우인 환자의 흉터를 줄이기 위해 위험부담이 큰 까다로운 시술법을 택해 생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예슬이 겪은 것은 의료사고가 맞다. 그래도 그 의도는 선한 것으로 보인다. 한예슬의 경우 의료진이 생각한 최선은 단순한 종양의 제거가 아니라 배우라는 직업을 고려한 ‘가려질 수 있는 흉터’까지였다. 그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취하려다 ‘더 크게 남은 흉터’를 남긴 한예슬과 의료진 모두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